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갈라디아서 2:11-21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지역에 완전히 상반되게 운영하는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A초등학교는 규율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규율을 어기면 벌점을 부과했고,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B초등학교는 대화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졌고, 교사는 학생의 형편을 살피며 적절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B초등학교에도 규정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규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학년 초기, A초등학교에는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고 급기야 전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B초등학교는 학년 초기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감을 찾더니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흔히 강력한 규율이 완전한 변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반한 가르침이 아닌 규율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만 강조한다면, 당장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패감과 공허함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와 사랑의 관계 중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갈라디아서 2:11-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중북부(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바울이 다녀간 이후 그릇된 교리로 선동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이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설교했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앙에 왜곡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력한 논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교합니다. 얼마나 간곡하고 긴박했으면 서두(1-5절)를 쓴 이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매우 신랄한 어조로 복음을 위협하는 상황을 경고합니다(6-10절).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기원에 관해 서술하고(1-2장), 이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3장).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11-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자 게바와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는 행동을 할례자들이 비난했을 때(행 11:2-3), 옹바에서 본 환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행 11:9)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으며, 유대인들이 이를 수용하기를 바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거리낌이 없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 구원 사역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방인이 다수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자들에 의해 복음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바른 복음'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중차대한 처사였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엄숙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 기독교인을 차별한 것이고 또 유대적 사고에 바탕을 둔 비진리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지도자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과 유혹을 이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 낼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외식을 일으키는 강력한 유혹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벧전 5:8 참조). 둘째, 동역자의 지적이 있을 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의 행동을 회개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복음의 진리와 믿음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일관되고 온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온전히 서지 않고 흔들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불안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진리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사실보다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나요?(16절)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언급하며(14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서 성장했던 자신의 신분을 말했기에, 유대인들도 그의 말을 관심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자신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설파합니다(16절).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모르고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범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19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존재입니다(20절). 그와 같은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적용과 나눔 II

나는 언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변화나 성숙을 경험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율법은 죄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롬 3:20).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율법을 지켜 의로운 존재가 된 사람도 없으며, 형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보장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기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롬 2:28-29).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수준의 신앙(골 2:20)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아와 아집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순종할 때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성숙은 내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금방 휘발됩니다. 쉬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순종할 힘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 안에 일어난 성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